



# 지역 소식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성도들



## 서울 서 스테이크 탄생

서울 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완공을 축하하는 문화의 밤 행사, 준공식 및 오픈 하우스 행사,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위 사진은 문화의 밤에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발표하는 모습이다.



**“이** 두 스테이크를 통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라나는 세대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은 강한 간증을 지니고 성장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철십인

**20** 15년 4월 26일, 서울 서 스테이크가 탄생했다. 26일 강서 및 인천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 두 스테이크가 서울 서 스테이크로 통합되었다. 스테이크 센터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지어진 새로운 집회소가 사용된다. 이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며, 앞서 24일부터 25일까지 문화의 밤, 준공식 및 오픈 하우스 행사가 있었다. 인천 시청 앞에 위치한 지상 4층의 이 아름다운 건물은 인천1 와드와 인천2 와드 등의 집회소로 사용된다.

### 4월 24일 금요일: 문화의 밤

축하 기념 행사 첫날인 24일 금요일 저녁, ‘문화의 밤’이 공연되었다. 강서와 인천 스테이크 회원들이 발표를 통해 건물의 기공을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 및 강서 스테이크 회원뿐 아니라, 서울 경인 지역의 회원들과 구도자들, 지역 주민들도 초대되었다.

한국 교회 60년 역사를 돌아보는 동영상 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문화의 밤이 시작되었다.

1부에서 다양한 그룹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어린이, 청년, 전임 선교사 등이 각기 재능을 살려 음악을 연주했다. 어린이들은 핸드벨 연주와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전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 청년 아카펠라 팀은 깊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더 큰 신앙을 염원했다. 선교사들의 담대하고 힘찬 중창은 모두에게 큰 에너지를 전달했다.

리아호나 오케스트라가 ‘차이코프스키 세레나데 중 왈츠’를 연주하며 본격적인 음악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2부에서, 성악가 김지은 자매와 정지호 형제는 ‘청산에 살리라’, ‘LA DONNA E MOBILE’ 등을 독창하며 관객의 귀를 사로잡았다. 연합 합창단은 가곡 ‘남촌과 찬송가 ‘감사드리세’, ‘생명의 양식’ 등을 발표했다. 합창단의 열창에 감명받은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 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 설명,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사진 첫째 줄: 어린이 합창단과 선교사 중창단이 문화의 밤 행사에서 노래하고 있다. 둘째 줄: 문화의 밤 행사에서 열창하는 정치호 형제, 리아호나 오케스트라와 강서 인천 연합 합창단이 협연하고 있다. 25일 준공식에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 종교 및 언론 각계 인사들이 리본 커팅식을 갖고 있다. 셋째 줄: 봉사자들이 오픈 하우스에 참석한 지역 주민에게 물문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 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은 (왼쪽부터) 제1보좌 이상래 형제, 회장 이인호 형제, 제2보좌 오우현 형제.

**25일 토요일: 준공식 및 오픈 하우스**

행사 둘째 날인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픈 하우스 행사가 열렸다. 이는 마치 집들이와 같은 행사로서, 교회 건물을 구경하고 교회에 대해 소개하는 행사였다. 원하는 모두가 참석이 가능했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초대되었다.

오픈 하우스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 및 준공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준공식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당시 지역 칠십인 오희근 장로 및 교회 지도자와 함께 종교 및 언론 각계 인사와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연사로서 축사를 나눈 한국종교학회장 김재영 교수는 “후기 성도들의 언어는 이 공간을 넘어서면

(비종교인에게는) 사투리가 되고 외국어가 된다”며 복음의 가치와 봉사가 삶의 현장에 전달되도록 독려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오희근 장로는 “우리에게 이 훌륭한 건물을 주신 주님의 사업과 목적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주님의 인도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고 화합하는 성도가 될 것을 독려했다.

지역사회 노인회와 복지기관, 공사 때문에 불편을 겪었을 지역 주민 등에 쌀을 전달하며, 준공식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 이웃 종교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 26일 일요일: 스테이크 대회와 통합

일요일 10시, 링우드 장로의 감리로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새로운 집회소에 기존 강서 스테이크와 인천 스테이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 칠십인 정태걸 장로는 '서울 서 스테이크'가 탄생했음을 알렸다. 강서 스테이크와 인천 스테이크가 통합되며, 기존의 가정, 계산, 답동, 만수, 부천, 부평, 시흥, 연수 와드가, 새로이 부천, 인천1, 인천2, 청라 와드로 탄생했다. 기존의 개봉, 김포, 목동 와드는 그 경계와 이름을 유지하게 되었다. 서울 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으로 전 강서 스테이크 회장인 이인호 형제, 1보좌에 이상래 형제, 2보좌에 오우현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정태걸 장로는 새로운 집회소의 헌납 기도를 올렸다.

이날의 연사로, 인천 스테이크 회장에서 해임된 박인수 형제와, 서울 서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부름받은 이인호 형제, 지역 칠십인 정태걸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등이 말씀했다.

박인수 형제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신권을 통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하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우선 순위로 세웁시다. 그분께서는 빚지지 않으시며 풍성하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라며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을 전했다. 이인호 회장은 물문경에 나오는 리하이 가족의 항해에 서울 서 스테이크를 비유하며, “우리는 서울 서 스테이크라는 배에 함께 올라타는 것입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힘차게 배를 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와 활동 모임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위로받으며 우리 자녀들과 후손이 복음 안에서 대대손손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전했다.

지역 칠십인 정태걸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

[그분]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영생의 말씀”(모세서 6:59)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권고했다.

링우드 장로는 한국어로 말씀하며, “이 역사적인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도록 지명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시절 인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을 회상했는데, 약 37년 전인 1978년 당시 그가 가가호호를 하며 찾아낸 구도자는 이후 초대 인천 스테이크 회장단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데 강한 느낌을 받았다”며, 가정과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회개를 외쳐야 함을 강조했다.

“모로나이 장군은 레이맨인에게서 도시를 되찾는 것보다 레이맨인으로부터 성을 지켜 성이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간 청소년들을 다시 활동화시키는 것보다, 충실한 상태로 활동적이게 남겨 두는 것이 더 쉽습니다.

베냐민 왕 시대의 백성들은 순종했으나 그의 자녀들은 후에 교회를 떠났고, 불신앙과 사악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곤 합니다. 힐라만의 이천 용사는 부모인 암몬 백성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신앙, 의로움, 순종, 용기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링우드 장로는 계속해서, 청소년 지도자, 부모, 조부모, 미래의 부모 등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는 데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아론 신권 회장인 감독과, 청소년 지도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집권, 친구가 되어 주기, 정기적인 가정의 밤 등 이들이 책임을 다해 청소년을 돌보고 가르치도록 권고했다.

“이 두 스테이크를 통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라나는 세대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은 강한 간증을 지니고 성장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결혼하고 의로운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

모로나이 장군은 레이맨인에게서 도시를 되찾는 것보다 레이맨인으로부터 성을 지켜 성이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간 청소년들을 다시 활동화시키는 것보다, 충실한 상태로 활동적이게 남겨 두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진: 14일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BYU 윈드 심포니

# BYU 윈드 심포니 내한 공연

## 음악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어 ...

**5월** 14일 밤, 대규모 콘서트홀인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 옛된 얼굴의 대학생들이 무대에 섰다.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된 윈드 심포니(이하 BYU 윈드 심포니)가 아시아 투어 중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내한 공연의 이 마지막 순서에서, 1,082석의 좌석표가 한 장도 빠짐없이 매진되었고 공연 시작 전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로, 공연장 복도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BYU 윈드 심포니는 관악기 및 타악기, 베이스로 이루어진 합주단으로, 뛰어난 기교와 앙상블로 유명하다. 지난 5월 9일과 12일, 광주와 부산에서 각각 공연한 데 이어, 13일 부천시 시민회관에서는 미8군 군악대와 협연을 펼쳤으며, 14일에는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42개 다국적 단원으로 구성된 카마라타 챔버 싱어즈와 협연했다.

일주일 간의 바쁜 방한 일정 중에서도, BYU 윈드 심포니는 5월 10일 노변의 모임을 열었다.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린 이 모임은 간증과 음악이 어우러진 영적인 시간이었다. 연사 중 한 명이었던 오케스트라 단원 다니엘 샘슨 형제는 개종자로서, 음악을 통해서 만난 후기 성도 친구들의 의로운 모범,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접한 이야기 등을 전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음악적 재능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이 의로운 친구들을 만나도록 하였고 복음의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제 소망은 이러한 간증을 온 세계에 나누는 것입니다.”

노변의 모임에 참석했던 광주 스테이크 채은교 자매는, “BYU 윈드 심포니의 아름다운 반주에 맞춰, 온 청중이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순간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지휘자인 돈 엘 피터슨 형제는 14일 공연의 무대 인사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전 세계 투어는 마치 가족을 만나며 더 알게 되는 시간과 같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자연의 푸름보다 더 아름답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다”며 한국에서 받은 성원과 환대에 감사함을 표했다.

14일에 공연을 관람한 영동 스테이크 김혜진 자매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어렵고 무거운 거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BYU 윈드 심포니의 뛰어난 실력과 열정이 강하게 와 닿았고, 음악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전했다. ■

# 그들이 부른 노래는 ‘믿음’이었다

군인에게 맞고 끌려가면서도, 이웃들은 태연히 노래를 불렀다 …

서울 동 스테이크 김두현 형제

**북** 한에 있는 내 고향에 살던 시절, 27세가 되던 그해의 일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더운 여름 날, 나는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완전히 훑아 떨어져 있던 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카만 한밤 중, 아마 자정 즈음이었던 것 같다. 어슴푸레한 달빛과 움직이는 손전등의 불빛들로 바깥 동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카키색 트럭이 서 있었고, 수십명의 군인·경찰들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몇몇 가정집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가족들을 끌고 나왔다. 슬픔과 공포심이 내게 엄습했다. 이들은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를 주고받았던 내 이웃들이었다. 그들이 정부와 체제에 반하는 큰 잘못으로 종신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받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 앞에 닥쳐온 위기를 짐작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맞아 피가 흘렀고, 발길질과 총에 떠밀려 짐짝처럼 트럭에 태워졌다.

그때,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라기엔 표정마저 너무 의연하고 떳떳했다. 트럭은 곧,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후로 한동안, 그날 밤 목격했던 광경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밟혔다. 무슨 잘못으로 끌려간 것인지, 왜 노래를 불렀으며, 그것이 무슨 노래인지 … 우연히 알게된 사실은, 그들의 ‘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찬송가’라는 것이었다. 일요일이면 어느 한 집 지하에 모여 몰래 예배를 봤다고 했다. 나는 황당했다. 당시의 내 기준으로는, 허황된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그러고도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며 떠난 그들이 무지하게 느껴졌고, 불쌍하고 가여웠다.

시간이 흘러, 나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떠나게 되었다. 몇개월 동안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을 경험하고,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걸렸다. 급기야, 원인 모를 질병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나는 죽음의 문턱을 느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과거의 기억과 주변 사람들이 눈앞을 스쳤다. 특히, 고향에 남겨진 부모님과 아내에게 모든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원통하고 억울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던 순간,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 나는 의심없이,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간구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배운 적도 없지만,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능으로 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대형병원을 두 차례나 옮겨가며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한달 여만에 내 몸이 원상태로 회복되었고 건강을 되찾는 축복을 받았다. 그 후에도 나는 인생에서 여러 크고 중요한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경험했다.

물문경에서 베나민 왕은, “하나님을 믿으라, …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모사이사서 4:9)”고 가르쳤다. 내가 사신을 넘고 시련을 거쳐 지금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는다. 머지않아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그때 선교사와 지도자로 봉사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분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도 실천되리라고 믿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나는 더 충실히 행할 것이다. ■



본문  
사진: 노량진와드 YSA, SA에 초대된 청년과 독신 성인

## 독신 그룹 탄생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명과 자립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서** 울 남 스테이크에 서울 경인 지역 독신 회원을 위한 그룹이 탄생했다. 노량진 와드 소속의 청년 독신 성인 그룹(이하 YSA 그룹)은 5월 4일 일요일에, 봉천 와드 소속의 독신 성인 그룹(이하 SA 그룹)은 같은 달 11일에 와드와 별도로 성찬식 및 안식일 정규 모임을 시작하며 그룹의 신설을 알렸다. YSA 그룹 지도자로 노량진 와드 감독단 1보좌인 안상철 형제, 제1보좌로 정신영 형제가 부름받았으며, SA 그룹 지도자로 남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김종수 형제가, 제1보좌로 이명수 형제가 부름받았다.

서울 남 스테이크 회장 권영준 형제는 각 그룹의 첫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여 독신 그룹의 신설을 축하했다. 그는 노량진 와드의 YSA 그룹 모임에서,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봉천 와드의 SA 그룹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주제로, 청소년 시절 겪었던 영적인 도전과 주변의 도움, 주님과 소통 등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SA 그룹 지도자인 김종수 형제는 “독신 성인 여럿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이곳에 참석하도록 설득했다”며 독신 회원에

대한 사랑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봉천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는 박진우 형제는, “이곳에 올 때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라고 당부했다.

경건한 성찬식 모임에 이어, 주일학교와 정원회 모임은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신권회와 상호부조회가 합반하여 공과가 진행된 가운데, 그룹 지도자들의 토론은 점차 독신에게 그 초점을 맞춰나갔다. 자립, 사회적인 성공과 신앙 생활의 조화, 부름 수행 등,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값진 조언이 신앙의 선배로부터 독신 회원에게로 전달되었다.

권영준 회장은 YSA 그룹에게, 다음의 3가지 사명을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1.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자. 2. 단 한 명도 잃지 말자. 3. 개인 기록과, SNS 등을 통한 공개적인 기록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과 뜨거운 간증을 후손과 교회 회원들에게 전하자.

이날 참석한 YSA 그룹의 양우리 형제는, “아침에 버스를 놓쳤지만 그 무엇보다 이곳에 오고자 하는 나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 선교 사업 첫 임지에 갈 때와 비슷한 설렘을 느꼈다.”고 전했다.

YSA(청년 독신 성인) 그룹은 만 18~30세, SA(독신 성인) 그룹은 만 31~45세의 미혼 회원들이 대상이다. YSA 그룹의 첫 모임에는 약 50~60명의 청년 독신 성인이, SA 그룹의 첫 모임에는 20여 명의 독신 성인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사진: 서울 영인 지역 청년 대회 포스터, 대전 및 부산 선교부 지역 청년 대회 포스터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강화, 선교 사업, 친목 도모다.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교 사업을 위해 노력할 때, 봉사하는 후기 성도의 신앙이 강화되며 또한 돕는 자와 도움 받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게 된다.

청년 대회 독신 형제 대표 최원석 형제는, “예전에 참석했던 청년 대회가 선교 사업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며 “청년 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2015년 연합 청년 대회

8월 13~16일, 전국 모든 독신이 두 곳으로 모인다.

**8월** 13일에서 1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2015년 청년 대회가 열린다. 전국의 모든 독신은 같은 날 다른 두 장소에서 모인다. 서울 선교부와 서울 남 선교부 지역 내의 모든 스테이크 및 지방부가 연합하며, 대전 선교부와 부산 선교부 지역의 모든 스테이크 및 지방부가 연합하여 청년 대회를 진행한다.

지금, 각 지역의 청년들은 청년 대회 준비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각 지역의 청년 대회 준비 상황을 이곳에 신는다.

**서울 및 서울 남 선교부 지역,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니파이전서 17:13)**

서울 및 서울 남 선교부 지역의 청년 대회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에서 열린다. 청년 대회 운영 및 준비 위원회를 꾸리는 모든 과정에서, 신권 지도자와 독신들은 서로의 영감을 존중하며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 청년 대회에는 특별한 세 가지 목표가

**대전 및 부산 선교부 지역,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대전 및 부산 선교부 지역의 독신들은 청년 대회를 위해 남해 한려 해상 국립 공원으로 모인다.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별로 독신 회원들이 다채롭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들은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서로의 우정, 사랑 그리고 선한 영을 함께 느끼고 나눌 것이다.

지난 5월 5일, 서울 성전에서 김창호 장로의 감리하에 집행 위원회와 각 스테이크 독신 대표들이 모여 함께 성전 의식을 받고 준비 모임도 가졌다. 청년 대회 집행 위원장인 이지민 형제는, “참석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과 나이가 다를지 모르나,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들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 한국 자립 지원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지 소개

자립 온 ON 무빙 포워드  
Moving Forward



사진: 한국 자립 지원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화면

SRS"가 이 페이스북 페이지의 공식 이름이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립'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립에 관한 지침이나 정보, 성구, 성공담 등을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도들의 취업과 창업, 직업 교육을 위한 다양한 채용 정보와 창업 지원 정보, 우수 직업교육기관 정보 등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국 자립 지원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되었다. "한국 자립 지원 서비스 Korea

이 페이지는 한국 자립지원부에서 관리하지만, 관심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누구나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서울 서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 서울 강서 스테이크와 인천 스테이크가 통합되어 서울 서 스테이크가 됨  
 서울 서 스테이크 회장: 이인호 형제(전임: 서울 강서 스테이크 이인호 형제, 인천 스테이크 박인수 형제)  
 서울 서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이상래 형제  
 서울 서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 오우현 형제

부천 와드: 선영필 형제(부천 와드와 부평 와드가 통합되어 부천 와드가 됨. 전임: 부천 와드 선영필 형제, 부평 와드 김오 형제)  
 인천1 와드 감독: 최준영 형제(담동 와드와 연수 와드가 통합되어 인천1 와드가 됨. 전임: 담동 와드 이남호 형제, 연수 와드 최준영 형제)  
 인천2 와드 감독: 김동의 형제(만수 와드와 시흥 와드가 통합되어 인천2 와드가 됨. 전임: 만수 와드 김우식 형제, 시흥 와드 윤효중 형제)  
 청라 와드 감독: 홍기빈 형제(가정 와드와 계산 와드가 통합되어 청라 와드가 됨. 전임: 가정 와드 이은상 형제, 계산 와드 홍기빈 형제)  
 \* 위의 와드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된 와드의 경계는 통합 이전 두 와드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즉 와드 경계에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음

###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감독: 정문영 형제(전임: 이강훈 형제)

###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3명 / 장로 2명

### ■ 새로 부름받은 봉사 선교사

장로 1명



**박채원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  
중국 홍콩 선교부



**송하늘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선교부



**안지민 자매**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염은진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서울 선교부



**이종혁 장로**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정안채 장로**  
창원 스테이크  
거제 지부  
자립 지원 서비스